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하나님이 보우하시는 나라

성경: 이사야 52장 1-10절

Tag:

1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니는 네게로 들어오미 없을 것임이라

2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3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4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앗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5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 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 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6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7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8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9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이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10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사52:1-10)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우하시는 나라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

호하시고 도우신다. 그 증거는 우리나라 역사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오래도록 중국은 우리나라를 마치 속국처럼 여겨 왔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짓밟아도 결코 말살되지 않는 민들레와 같은 민족성을 유지하여 자치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다만 일제 36년 동안은 치욕스러운 기간. 스스로 율법주의라는 감옥에 갇혔으니, 나라가 너무 쉽게 넘어갔으나, 함부로 하지 못함. 하나님께서 보우하셨기 때문임.

그러나 해방 이후 비로소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 있었고, 자주국방을 이룩하고 세계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훌륭한 인재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 지리적으로 유리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보우하심이 컸던 것을 잊으면 안된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생명싸개에 싸서 보존해 주셨다.

특히 지극히 어려웠던 시기에 복음을 전파해 주셨고, 특히 북한의 평양에서부터 부흥이 불붙기 시작했다.

그러나 북한은 김일성 공산당에 의해서 압제받는 포로생활을 하게 된다. 이제 76년이 다 되어간다. 일제치하때 보다 두배 더 많은 세월이 흘렀다.

이처럼 혹독한 포로생활은 일제치하때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

-김일성이 일으킨 6.25 전쟁은 한반도에서 벌어진 모든 전쟁 중 가장 비극적인 동족상잔의 전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우하사 복음이 꽃피는 남한은 자유대한민국으로 남을 수 있었다.

이제 오늘 읽은 이사야서 52장의 말씀이 하루빨리 북한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1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시온은 평양이라 여기고 신앙고백적 성경읽기를 해 보자. 한국의 예루살렘

거룩한 성;한반도 최초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른 곳. 평양신학교가 세워지고 7명의 목사가 졸업했다. 이기풍목사는 최초로 선교사가 되어 제주도로 갔다.

-네 아름다운 옷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는 구원의 예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입는 옷.

-할례받지 아니한 자, 부정한 자;다시는 악한 정권이 들어서지 못하리라고 해석하고 싶다.

2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앓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일어나 앓을지어다;엎드려져 있는 자들아, 절망중에 있는 자들아, 땅바닥에 앉은 자들아, 일어나 너의 신분을 회복하고, 자기 자리에 앉으라. 자유인의 신분을 회복하라. 포로의 신분을 벗으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라.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라;너는 압제자의 포로가 아니다. 너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죄인이여 죄인이라는 낙인이 곧 당신의 정체성은 아니다.

-죄인은 회복해야 할 존재라는 뜻이고,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다.

-포로는 풀려나야 할 존재라는 뜻이고, 엽매인 모두는 반드시 풀려나 자유를 누리야 할 사명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당신은 초라한가, 스스로 초라한 옷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의 의의 옷을 입으라.

-당신은 무능한가? 스스로 당신 목에 걸려있는 무능이란 줄을 풀고 능력자가 되어라. 힘을 기르고, 지혜를 구하고, 용기를 내어 도전하라.

3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76년 동안 값없이 포로 되었으니, 값없이 풀려나야 하리라.

4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앗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공연히;까닭없이. 그들은 거짓말쟁이들. 그들은 폭도들, 불법자들. 그러고도 자신들이 하는 짓이 악행인지도 모른다.

과거 당나라, 몽골족, 오랑캐, 왜구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고, 한반도를 유린했으나, 그들은 결코 이 나라를 집어삼키지 못하였다.

5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까닭 없이 잡혀감;정권야욕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억울하게 포로로 잡힘.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세계 1등 기독교박해국.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자.

분단과 전쟁의 위협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된 한국. 이민자가 많은 나라; 각 나라로 이민가서도 대한민국을 잊지 않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는 민족.

박해를 받는 자는 자기가 하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못한다.

6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리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믿는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믿는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는다.

-유사 이래 가장 악독한 핍박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7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
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 나의 발이 곧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 나의 발이 평화를 공포하는 발.
- 발은 곧 행동하는 신앙인을 의미함.
-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 북한에 좋은 소식을 전하자.
- 북한에 거짓 평화, 위장평화가 아닌, 북한정권을 향한 평화가 아닌,
압제받고 있는 동포들의 평화를 공포하자.
- 그들에게 구원을 공포하자.
- 평양의 주민들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 너희 통치자는 김정은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자. 아멘.
- 국방부의 대남방송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자들이 곧 북한군 초
소의 병사들. 이들은 김정은보다 더 잘 남한에 대해서 듣고 있다.
- 그들이 듣는 남한의 소식은 구원의 소식, 자유의 소식. 천국의 소식.
- 탈북민 단체들의 빠라는 곧 구원의 소식이 된다.
-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외치자!

9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이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
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
이라

- 평양시민을 위한 찬양을 작곡하고 노래하는 자가 필요함.
- 북한 사람들이 부를 찬양이 필요함.

10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사52:1-10)

아멘.

<찬양예배>

제목 : 하박국 성경공부 성경: 하박국

Tag:

1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묵시로 받은 경고;묵시(감추어진 계시) 경고성 계시

2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
다

-강포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하박국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 세상에 강포가 가득한데 하나
님은 방관하시는데 대한 항변.

3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
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

4 이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급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정의가 급게 행하여짐. 정의가 악인들의 잣대로 재어짐.

-의인인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버팀목이 될 것인가, 지혜자가 될
것인가,

5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
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헤아릴 수 없다.

-너희들은 놀랄 것이다. 믿지 못할 일들을 하실 것이다.

6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 강패 군단을 일으키실 것이다.

7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8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켜쥐려는 독수리의 날음과 같으니라

9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 같이 많이 할 것이요

10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11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 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삼는 자들. 범죄자들의 포악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12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 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박국의 억지해석;주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자들이지요?

13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차마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차마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러나 방관하시는 것은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14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15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16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17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

는 것이 옳으니이까(합1:1-17)

1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랴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
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은 파수꾼인가?

2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관
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묵시를 기록하라; 명백하고 확실하게 이행될 묵시

3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
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
하리라

4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합2:1-4)

-그들이 이처럼 악행을 서슴치 않는 이유는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인은(정의를 행하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
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의미함.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함. 하나님은 진실로 전
능자시니 너는 하나님을 믿고 정의를 행하라.

☞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 '믿음'의 히브리어
'에무나토'는 '공평', '견고', '확실', '영원'등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특별
히 신뢰성에 기초하여 증명되는 개인의 품성이나 행위의 '공평함'을
뜻한다.

20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
라 하시니라 (합2:20)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성전에 와서 잠잠할 지니라.

2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
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합3:2)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환란 중에 주를 찬양하라~ 주의 부흥을 노래하라.

17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
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
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밭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
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합3:17-19)

하박국의 결론부분.